

# 공과계열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결정 효능감과 진로 탐색 행동의 관계

이정민<sup>†</sup>·고은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Students

Jeongmin Lee<sup>†</sup>·Eunji Ko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predicting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types(rational type, intuitive type, and dependent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ere included as predictors for this study. 249 engineering students in Gyeonggi-do of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231 data analyzed as final sampl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rational and intuitive decision making significantly predicte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lso,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ompletely mediated between these career decision making types(rational and intuitiv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on practice for career education are discussed in the paper.

**Keywords:** Career decision making typ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ngineering Career Development

### 1. 서 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졸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개인의 적성과 특기는 간과한 채, 관계없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하향 취업현상 등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수영, 이영민, 2009). 서울 공대 진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의학계열이나 로스쿨, 변리사, MBA과정 등으로 전공을 바꾸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호섭, 2014. 10. 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과대학에서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진로상담과 같은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신선미, 오은진, 2004),

실제로 대학 내 취업 전담기관 역할 강화와 상담교수제나 커리어코칭과 같은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희정, 윤명희, 2014). 아울러, 국가차원에서도 '이공계지원 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류혜숙, 2007),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산학협력과정에 참여시키고 인턴십 과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광규, 안범준,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물질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수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진로탐색과정을 고려한 진로프로그램 개발연구가 부족하여 적절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연, 정윤경, 백순근, 2003).

또한, 공과대학의 학생 개인 차원에서도 진로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길과 강경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공과계열 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수준과 전공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선택에

Received October 6, 2016; Revised November 21, 2016

Accepted November 30, 2016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ewha.ac.kr

있어 이공계학생들이 진로나 전공선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관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사회가 대학교육에 보다 정교한 진로지도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철, 문혜영, 2014), 공과대학은 학생의 특성 및 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진로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Super(1951)의 전 생애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의 시기는 '탐색기'를 거치는 시기로, 구체적인 진로와 직업에 대한 잠정적인 의사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진미석, 한상근, 2002)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진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또한 직접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태도나 성숙도 보다는 구체화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박정주, 정주영, 2010). 즉, 현대 사회의 대학생은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능력 함양과 적극적인 직업세계 탐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를 놓친 채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않는 졸업유예의 방법으로 진로 선택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문제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강경연, 박숙경, 이계경(2015)은 진로목표 부재 또는 진로목표의 낮은 설정을 졸업 유예의 결정적인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진로에 관련된 탐색을 통한 진로목표 수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관련된 실제적 탐색을 진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임언, 정윤경, 백순근(2003)은 대학생의 진로 개발 역량에 대한 논의와 기존 프로그램 체제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 이해를 위한 검사, 전공 및 직업에 관한 정보, 의사 결정 안내, 진로 준비 방법 안내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고, 특히 진로개발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진로 결정이라는 점에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언 또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Harren(1979)이 진로 결정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대안을 찾아가는 심리적 과정을 기술하거나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한 진로의사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은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가치와 관련지어 검토하는 계획(planing)의 과정으로, 이 과정은 개인적인 특징과 환경요소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Harren, 1979),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진로 의사결정유형(career decision-making style)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성남, 정철영, 2005). 한편, 진

로탐색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의사결정유형(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이 각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엇갈리고 있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규명하는 것은 진로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고향자, 1992; 유순화 외, 2004; Blustein, 1987),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며, 특히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진로 선택, 개발, 행동 등과 관련된 확신으로 개념화된 진로결정효능감은(Hackett, Betz, 1981) 진로탐색행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1989; 장유희, 2007). 즉, 진로 관련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선택과 계획을 돕는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통한 올바른 진로결정을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과계열 대학생의 목표로 보고, 공과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진로의사결정유형(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이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공과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의사결정유형(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가?

연구가설 2.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공과계열 대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동향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대학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진로지도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특정기업 맞춤형 트랙실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진성희, 한승우, 김태현, 2014). 특히 이공계 출신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전공과는 일치하지 않는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안국, 2006). 이에 따라 최근의 공과계열 대학생들의 진로 관련 연구는 스스로 진로탐색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경

험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진로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성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공과계열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결정을 돕기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이상인 반면, 진로탐색행동 수준 특히, 직업탐색 수준이 낮다고 분석되었다.

진로 탐색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탐색행동이 사용되고 있는데(김봉환, 1997; 유영란, 강명희, 2014; 이수영, 이영민, 2009; 진성희, 성은모, 2012; Blustein, 1989; Blustein, Flum 1999), 이들 변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lustein과 Flum(1999)은 학생들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Blustein(1989)은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진성희와 성은모(2012) 역시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힘으로써 진로탐색효능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봉환(1997)은 진로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취업은 실패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실천적 행동을 의미하는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탐색한 이수영과 이영민(2009)의 연구에서는 이공계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학년 수준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공학교육 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유영란과 강명희(2014)는 사회적 지지나 인지적 혹은 정서적 지원이 자기주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공학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태도성숙으로 이어짐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공과계열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를 대비하는 실천적 행동인 진로탐색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예측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진로의사결정유형(career decision making style)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을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제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방식, 혹은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진로교육학회(1999)는 진로의사결정을 개인의 진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거하여 상호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분류의 시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Dinklage(1968)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최초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계획형, 고민형, 지연형, 무기력형, 충동형, 직관형, 숙명형, 동조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남을 주장하였으며, 직관형 유형은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그 외의 유형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Gelatt(1962)의 의사결정 모형은 상담을 위해 고안되어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보고, 진로목표를 세운 뒤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그 대안들의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Gelatt의 모형을 바탕으로 Arroba(1977)가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은 논리형, 생각없이 결정하는 형, 망설이는 형, 감정형, 순응형, 직관형으로 구분되며, 그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Harren(1979)은 Dinklage가 분류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이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이렇게 세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고향자, 1992).

합리적 의사결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사려 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Harren 1979). 이들은 이전의 경험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수집과 같은 체계적 준비를 하여 의사결정이 매우 신중하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의사결정 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향자, 1992; Harren, 1979).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환상이나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특징을 가진다(Harren, 1979). 즉, 직관적 의사결정자는 상황에 따라 적응은 빠르지만, 결정에 대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김종운, 윤명희, 박성실, 서희정, 2009). 마지막으로 의존적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거부하고 그 책임을 자신 내부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같은 외부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사회

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 타인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적 만족감이나 충족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패의 위험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고향자, 1992; 김종운 외, 2009; Harren, 1979). Harren(1979), 고향자(1992), 설재풍(2001)은 이러한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을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시에 Harren(1979)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 가지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에 내재된 각각의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 3.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핵심적인 변인으로써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Hackett, Betz, 1981). 자기효능감이 성공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활동을 하도록 개인을 동기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므로(Bandura, 1977)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Betz와 Klein, Talyor(1996)는 진로결정효능감의 단축형 척도를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5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수집은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목표 설정은 스스로가 진로 관련 목표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그리고 계획수립은 스스로가 진학과 취업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고, 문제해결은 개인이 진로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느끼는 자신감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는 진로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스스로의 자산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이다.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를 성숙하게 하고(이기학, 이학주, 2000)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정혜옥, 2014) 인지, 심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수준에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송현심, 홍혜영, 2010; 엄태영, 김교연, 한복남, 2009; 장재윤 외, 2004) 행동 변인으로 발전시킨 연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을 진로 탐색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여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학자에 의해 정리된다. Jordaan(1964)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입사 후 적응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Blustein과 Flum(1999)은 자기를 평가하고 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맥락으로부터 제한과 외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Flum과 Blustein(2000)은 개인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수집 행동과 이를 시작 및 지속시키기 위한 동기,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전 생애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진로탐색행동은 크게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업에 대한 탐색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자신에 대한 탐색은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뿐만 아니라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과(최동선, 정철영, 2003) 직업정보 내용 중 개인에 대한 정보는 직업흥미, 적성, 직무능력, 인구학적 특성, 직업경험, 희망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김병숙, 김봉환, 1994).

또한 진로탐색행동에 관점에 따라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 선택과 상담의 학습이론의 관점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정보탐색 행동 또는 문제해결 행동의 유형의 하나로 바라보며(Krumboltz, 1979), 전통적 진로발달 이론의 관점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직업 선택을 정교화, 구체화 및 실행하는 진로발달적 과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정의한다(Ginzberg et al, 1951). 또한 진로 의사결정 이론의 관점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을 수반한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Gelatt, 1962).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합리적 의사결정,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고 있다(강승희, 2010; 김민정, 김봉환, 2014; 이현림, 송재영, 2004; Solberg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의와 관점을 종합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전 생애적 과정에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행동을 지속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습득이라고 정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 5.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첫 번째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접근할수록 더 많은 진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는(Blustein & Phillips, 1988)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진로에 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결정 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탐색에 있어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매우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김성남과 정철영(2005)는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탐색행동 수준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현숙(1998)은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의존적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이 부적 상관을 보이며, 직관적 유형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반면 임정훈(2015)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존적 유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유형은 대상자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진로결정효능감은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고 있다. Blustein(1989)은 진로관련 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이를 통해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활동을 더 많이 함을 강조하였다. 박지은(2005)은 사회적 지지수준과 효능감이 높은 상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각 하위 요인인 진로탐색행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음을 밝혔고, 이명숙(2002)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 자기효능감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숙경 외(2008)의 연구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의존적 의사결정이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고, Nieves 외(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 점수가 높을 때,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 및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가 낮을 때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고희재(2000)의 연구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진로 관련 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고, 의존적 의사결정이 진로 관련 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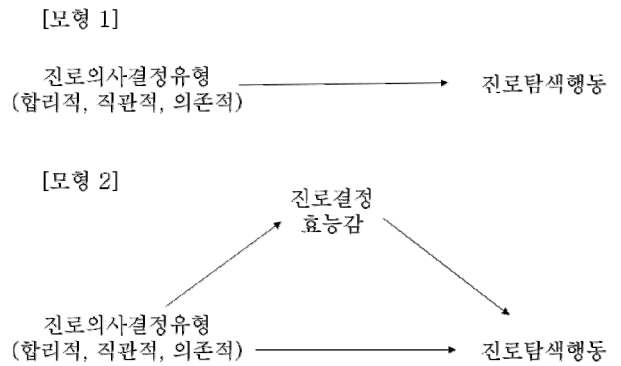


Fig.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진로에 관련된 변인은 연구 대상자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과계열의 대학생이 각각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지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상정하였다(Fig. 1 참조).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 실전 체험 캠프 및 멘토링 학습 등 진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과계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 지역 A대학교 공과계열의 대학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표집은 2016년 5월에 총 2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이 설문에 249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249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여 총 23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59명(68.8%), 여자 72명(31.2%)이었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27명(11.7%), 2학년 54(23.4%)명, 3학년 107(46.3%)명, 4학년 43명(1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로 살펴보면 신소재공학과가 20명(8.7%), 환경에너지학과가 19명(8.2%), 컴퓨터공학과가 30명(13.0%), 교통공학과가 22명(9.5%), 기계공학과가 24명(10.4%), 산업경영학도가 18명(7.8%), 전기공학과가 18명(7.8%), 전자공학과가 31명(13.4%), 정보통신공학과가 14명(6.1%), 토목공학과가 18명(7.8%), 화학공학과가 17명(7.4%)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표본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각 변인에 대한 성별의 등분산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두 표본집단은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

색행동에 대해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학년의 등분산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각각의 표본집단은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등분산성이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각 학과의 등분산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등분산성가정을 충족하였다.

## 2. 검사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로 시행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선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변인별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 진로 의사결정 유형

연구 참여자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Harren (1979)의 진로 의사결정 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중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 척도는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이 적용하는 전략이나 전략의 조합을 측정하는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등의 10문항으로,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3이며, 직관적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 1개를 제거하였다. 9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존적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 한다.' 등의 10문항으로,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3로 나타났다.

### 나.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 (Betz, Klein, Talyor, 1996)를 이은경과 이해성(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정보수집은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등 5문항, 목표설정은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계획수립은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등의 5문항, 문제해결은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자기평가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전체 문항내적신뢰도는 .93이며, 각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 .68, 목표설정 .76, 계획수립 .79, 문제해결 .73, 자기평가 .73로 나타났다.

### 다.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동선과 정철영(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매체나 경로를 통한 진로탐색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등으로 구성된 자신에 대한 탐색 12문항과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등의 직업에 대한 탐색 16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행동의 전체 문항내적신뢰도는 .93이며, 각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탐색은 .85, 직업에 대한 탐색은 .92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방법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출된 진로 의사결정 유형(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각각의 통계량은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되었다. 각각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31)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합리적 의사결정	4.80	.72	2.90	6.90	.24	-.31
직관적 의사결정	4.46	.68	2.40	6.40	.04	-.05
의존적 의사결정	4.07	.84	1.40	6.60	-.16	.85
진로결정 효능감	4.56	.76	2.52	7.00	.28	.47
진로탐색행동	4.10	.87	1.26	6.26	-.19	.44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이므로 정규분포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 2. 변인 간 상관분석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도출된 Pearson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모든 변수 간 상관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31)

측정변수	1	2	3	4	5
1. 합리적 의사결정	-				
2. 직관적 의사결정	.31**	-			
3. 의존적 의사결정	.31**	.43**	-		
4. 진로결정효능감	.52**	.45**	.21**	-	
5. 진로탐색행동	.40**	.40**	.32**	.67**	-

\*\* $p < .01$

## 3. 회귀분석

가.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진로의사결정유형 규명  
각각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선택 방식은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부터 포함시키는 방식으로(성태제, 2012), 진로탐색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은 진로탐색행동 총 변량의 16%(adj.  $R^2=.163$ )을 설명하였다.

### 나. 합리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 간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합리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합리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35, p < .05$ )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48, p < .05$ )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켰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62, p < .05$ )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예측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beta = .05, p > .05$ ) 진로결정효능감이 합리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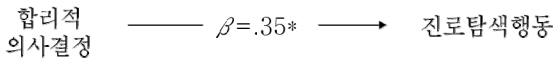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함께 진로결정효능감을 투입했을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1%로, 합리적 의사결정만 투입했을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설명력인 12%보다 약 29%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은 다음 Fig. 2와 같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resul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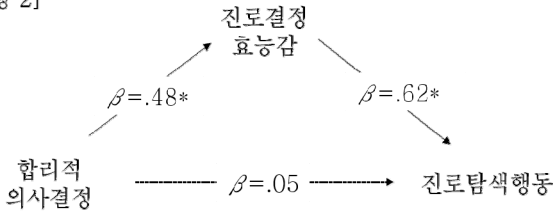
구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beta$	t	p	F	$R^2$ (adj. $R^2$ )
진입된 변인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탐색행동	.36	.07	.30	4.81*	.00	23.33*	.17 (.16)
	직관적 의사결정		.28	.08	.23	3.66*	.00		
제거된 변인	의존적 의사결정		-	-	.12	1.82	.07	-	-

\* $p < .05$

[모형 1]



[모형 2]



\*p < .05

Fig. 2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ween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다. 직관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 간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직관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참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29, p < .05$ )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직관적 의사결정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35, p < .05$ )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켰다. 마지막으로 직관적 의사결정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beta = .61, p < .05$ )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직관적 의사결정의 예측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beta = .08, p > .05$ ) 진로결정효능감이 직관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 의사결정과 함께 진로결정효능감을 투입했을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2%로, 합리적 의사결정만 투입했을 때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설명력인 9%보다 약 32%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은 다음 Fig. 3과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ween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 = 231)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beta$	t	p	F	$R^2$ (adj. $R^2$ )
1단계 (독립→종속)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탐색 행동	.41	.07	.35	5.62*	.00	31.54*	.35 (.12)
2단계 (독립→매개)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결정 효능감	.50	.06	.48	8.24*	.00	67.90*	.48 (.23)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탐색 행동	.06	.07	.05	.93	.36	80.33*	.64 (.41)
	진로결정 효능감		.71	.07	.62	10.66*	.00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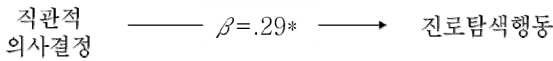
Table 6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ween intuitive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 = 231)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beta$	t	p	F	$R^2$ (adj. $R^2$ )
1단계 (독립→종속)	직관적 의사결정	진로탐색 행동	.36	.08	.29	4.63*	.00	21.45*	.29 (.09)
2단계 (독립→매개)	직관적 의사결정	진로결정 효능감	.38	.07	.35	5.70*	.00	32.46*	.35 (.12)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직관적 의사결정	진로탐색 행동	.09	.07	.08	1.41	.16	81.29*	.65 (.42)
	진로결정 효능감		.70	.06	.61	11.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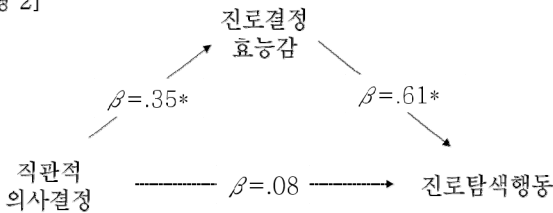
\*p < .05



[모형 1]



[모형 2]



\* $p < .05$

Fig. 3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between intuitive decision making styl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 V. 연구 결과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공과계열 대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규명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성남과 정철영(2005)과 임정훈(2015)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했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진로탐색행동과 유사개념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영향력을 규명한 이현숙(1998)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의사결정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결과와는 부분 일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합리적이거나 직관적으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진로탐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이 의사결정에 있어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진로에 관련한 탐색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화 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학교생활 도중 직면하는 우연한 기회나 비체계적인 활동을 통

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서적 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arren, 1979)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로탐색은 대학 졸업 후 선택하게 되는 직장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임정훈, 2015) 짧은 시간 내 진로의사결정에 유리한 직관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의사결정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과 관련이 높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접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김선영, 2007)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내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찾도록 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구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여 직업과 자신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목적의식을 명료화-관련 정보를 수집-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열거 및 평가-의사결정 및 평가-평가 및 재투입의 과정'의 합리적 의사결정 전략(임연, 정윤경, 백순근, 2003)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에 대한 태도가 진로탐색과 직결되기 어렵고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둘 것을 강조한 김봉환(1997)의 주장에 따라 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다른 심리적 요인의 개입이 영향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두 의사결정 유형 모두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숙경 외(2008)와 고향자(2000)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Nieves 외(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신의 이전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진로결정효능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직관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리적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는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고향자, 1992)을 고려하면 직관적 의사결정 또한 진로 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직관적 의사결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보다는 진로결정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짐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생이 진로 탐색을 위해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맥락 및 환경적 요인들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과 김봉환(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져 결국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득연(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때 목표한 진로 자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의사결정의 연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름을 인지하도록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느끼게 되는 성취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적/외적 동기 설제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구명하고, 이들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대학 또는 학과 단위의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이에 도달할 때 까지 정보를 수집, 선택, 평가하는 과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전략 훈련을 고려해야 하며,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수집과 문제해결을 학생 스스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관적 의사결정이 진로미결정과 낮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진로결정 및 진로탐색에 있어서 개인의 정서나 이전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연한 기회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한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취, 자신감 등의 내적동기 및 보상 설계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공과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도

와 관련된 교과목 이외에도 취업이나 진로 워크숍 등의 비교과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올바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자아정체성 탐색과 확립, 이공계 전공분야의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첫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측정된 변수 외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측정 변수를 추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지각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연구만으로는 진로탐색행동이 실제로 진로 결정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정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단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실제적인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살핀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A 대학의 공과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전국 공과계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무선표집이 이상적이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표집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학교와 전공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생의 진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함에 따라 물질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공과계열 대학의 진로교육에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설계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함에 그 의미가 있다. 연구를 확장하여 공과계열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효능감 이외에도 다양한 인지적·심리적 측면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진로교육에 반영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실제 진로 결정과 취업에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로 거듭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경연·박숙경·이제경. (2015). 대학생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34(2), 31-51.
2. 강승희(2010). 공학정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

- 연구, 29(3), 291-307.
3.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4. 과기인재정책과(2010). 2010 과학기술인력주요통계.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9703>
  5. 김민정·김봉환(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효능감, 합리적의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3), 27-45.
  6. 김병숙·김봉환(1994).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 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8. 김성남·정철영(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139-159.
  9. 김승철, 문혜영(2014).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9(3), 1-17.
  10. 김안국(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직장이동과 전공직종일치분석. *노동경제논집*, 29(1), 153-184.
  11. 김종운·윤명희·박성실·서희정(2009). 여대생의 성격유형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이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4), 195-217.
  12. 남숙경·이자영·박희락·김동현·이미경·이상민(2008).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 *한국교육학연구*, 14(1), 205-223.
  13. 류혜숙(2007). 이공계, 정말 위기인가? *한국교육개발원*.
  14. 박정주·정주영(2010).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중단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 박지은(2005).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6. 서광규·안범준(2012). 공과대학생의 취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산업체의 인식 조사. *공학교육연구*, 15(6), 3-8.
  17. 서희정·윤명희(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33(3), 105-125.
  18. 설재풍(2001).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식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 송현심·홍혜영(2010). 대학상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20. 신선미·오은진(2004). 전문대학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정책 과제: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1. 엄태영·김교연·한복남(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7(2), 69-85.
  22. 원호섭(2014.10.1). 과학영재마저 의대로 올림피아드 참가학생 5명중 1명은 의대로 진로 바꿔.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65494>
  23. 유순화·강승희·윤경미(2004).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1111-1123.
  24. 유영란·강명희(2014).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2), 225-247.
  25.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26.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 자기 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7. 이수영·이영민(2009). 공학인증: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분석. *공학교육연구*, 12(3), 73-78.
  28. 이용길, 강경희(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2), 60-67.
  29. 이은경·이혜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30. 이현림·송재영(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31. 이현숙(1998).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32. 임언·정윤경·백순근(2003).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 임정훈(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34. 장옥희(2007). 대학생의 진로관련 효능감이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35. 장재운·신현균·김은정·신희천·하재룡·장해미(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36. 정혜옥(2014). 예비 유아교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95-115.
  37. 진미석·한상근(2002).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8. 진성희·성은모(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1), 1-18.
  39. 진성희·한승우·김태현(2014).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공학교육연구*, 17(3), 8-21.

40. 최동선·정철영(2003). 대학생의 진로 탐색 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41. 한국진로교육학회(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학사
42. Arroba, T. (1977). Styles of decision 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5(2), 149-158.
43.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44.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45. Blustein, D. L. (1987). Decision-making styles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1), 61-71.
46. Blustein, D. L., & Flum, H. (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47.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88).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in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2), 203-216.
48. Dinklage, L. B. (1968).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49.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50. Gelatt, H. B. (1962). Decision-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51. Ginzberg, E., Ginsburg, S., Axelrad, S., & Herma, J.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52.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53.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54. Krumboltz, J. D., Mitchell, A. M., & Jones, G. B. (Eds.). (1979).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Carroll Press.
55. Neiles, S. G., Erford, B. T., Hunt, B., & Watts, R. H. (1997).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5), 479-488.
56.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
57.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이정민 (Lee, Jeongmin)**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학사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석사  
 2009년: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심리 및 교육공학박사  
 2009년: 퍼듀대학교 연구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설계, 창의성교육  
 E-mail: jeongmin@ewha.ac.kr



**고은지 (Ko, Eunji)**

2009년: 전북대학교 수학과 학사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HRD전공 석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SW교육, 진로교육, 교수설계, 소셜러닝  
 E-mail: kej1987@nate.com